

78명 대이동...임채빈, 마침내 'SS' 진입

〈슈퍼특선〉

한계 부딪힌 신은섭, S1반으로 강급
성낙송·정종진·정하늘 등 SS 지켜
25기 강성욱·윤다훈 첫 특선급 진출
특선 불박이 김영섭 등 18명 우수로

지난해 경륜을 뒤흔든 임채빈이 마침내 2022년 시작과 함께 슈퍼특선급(SS)으로 올라섰다.

2022년 시즌 개장을 앞두고 상반기 등급 조정을 통해 승급 35명, 강급 43명 등 총 78명의 승강급이 이루어졌다. 이번 등급조정은 2021년 6월 19일부터 12월 12일까지의 성적을 바탕으로 결정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공백기 때문에 경륜 등급조정은 2020년 6월 하반기 이후 한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등급조정은 공백기 이후 복귀하거나 곧 복귀를 앞둔 선수들을 중심으로 변화 폭이 컸다.

우선 경륜 팬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슈퍼특선(SS)은 2021시즌 그랑프리 챔피언과 대상경륜 2관왕인 임채빈이 승급한 반면, 부상과 함께 전법적 한계를 노출한 신은섭이 S1반으로 강급됐다. 성낙송, 정종진, 정하늘, 황인혁은 슈퍼특선을 지켰다. 사실상 임채빈의 강제 속에 나머지 선수들의 경합 구도로 이뤄진 판도가 전방된다.

특선급에는 10명이 승급에 성공했다.



광명스피돔에서 선수들이 출발대를 박차며 레이스를 시작하고 있다. 승급 35명 강급 43명 등 총 78명의 승강급이 이루어진 올해 등급조정에서는 지난해 차세대 황제로 등극한 임채빈이 슈퍼특선급(SS)으로 올라섰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이들 중 윤현구는 S2반으로 올라갔으나 이전 특별강급을 받은 경험이 있다. 25기 강성욱, 윤다훈은 첫 특선급 진출이다. 김민호는 긴 공백기와 기복이 심한 점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역시 첫 특선급 진출인 23기 박준성과 오랫동안 우수급 불박이였던 홍의철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데뷔한 26기 신인 중 우수급이던 방극산, 이태운, 정현수 등이 기대와 달리 특선급 진출에 실패하며 잔류했다. 김영수, 김주서, 박지웅, 배수철은 특별승급을 통해 이미 우수급에 올랐고 강동규, 김다빈, 박종태, 전정호가 추가로 우

수급에 진입했다.

우수급으로 승급된 선수는 25명이다. 24기 임요한이 처음으로 우수급에 진출했는데 공백기는 있으나 복귀 시 활약이 기대된다. 26기 신인을 제외하면 우수와 선발을 자주 오르내리던 선수들이 많다. 반면 특선에서 우수로의 강급은 18명이다. 오랫동안 특선급 불박이던 8기 김영섭이 '세월 앞에 장사 없다'라는 듯 강급됐다. 강급된 선수들 중 자력상부형들의 선전 기대와 함께 경주운영에 노련한 마크추입형들의 올해 활약이 주목거리다. 공백기가 있는 선수들은 당일 컨디션 관찰할 필요가 있다.

우수에서 선발로 강급이 된 선수 중 자력상부형들을 갖춘 선수들의 선전이 기대되지만 전형적인 마크추입형은 기복이 심할 수 있어 베테랑 전략에 주의해야 한다.

경륜유니버스 박정우 예상부장은 "코로나 휴장과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백기가 있었던 승·강급 선수들은 과거 성적을 너무 믿지 말고 최근 경주경험이 많은 선수 위주로 베테랑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강급자들 중 자력상부형 강자 외 뒷심을 유지하는 데에 기복을 보인 선수와 전형적인 마크추입형은 옥석을 고르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경륜, 올해 경주운영 계획 발표

‘선수가 판정 참관’ 제도 확대
1개월에 최소 1회 출전 보장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는 2022년 경륜 경주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확정된 경주계획에 따르면 2022시즌은 1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주 금, 토, 일요일에 열린다. 8월 15일(광복절), 9월 12일(추석 대체휴일), 10월 3일(개천절)은 월요일경륜을 추가 진행한다. 총 52회차 156일 경주이며 경주 수는 2964경주 이내이다. 공식휴장일은 1월 1일과 9월 9일, 10일(추석)이다.

올해는 경주 중 주행능력저하(경주 중 5차신 이격) 선수의 기량향상을 위해 훈련원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한다. 기록측정 기준을 통과하면 다시 출전할 수 있게 해 연간출전횟수를 최대한 보장한다. 심판판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선수들이 판정 과정을 참관하는 '심판판정 참관제'를 확대 시행한다.

선수들의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출전횟수를 1개월(4주)에 1회 이상 보장해 연간 최소 5400만 원의 상급수령이 가능토록 한다. 장기부상선수의 생계유지를 위해 선수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휴업급여를 받도록 연간 1억8000만 원을 지원한다. 현재 운영 중인 단체상해보험의 보장도 강화한다.

김재범 기자

경정 조성인, 생애 첫 최우수선수상 수상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가 개최한 '2021년도 경정 우수선수' 시상식에서 조성인(12기)이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첫 최우수상 수상으로 상금 1000만 원을 수여했다. 모범선수상은 이용세(2기)가 받았다. 2008년 이후 883경기 동안 출발위반이 없었으며 평균독점에서도 5위의 성적을 기록했다. 이밖에 공로상은 선수회장인 박상현(4기), 페어플레이어상은 김종목(17기) 한종석(8기) 김지영(15기)이 받았다. 신인상은 16기 나종호가 수상했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경정 2021’ 다승왕 조성인...상금왕엔 김종민

조성인, 우승 23회·준우승도 10회
김종민, 40회 출전 상금 8800만원

경정 2021시즌이 48회차(12월 29일~30일)를 끝으로 끝났다.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1회차부터 3회차, 11회차부터 17회차를 휴장했고 경주 수도 하루 8경주에서 12경주, 15경주로 늘어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지난해 다승은 조성인(12기)이 차지했다. 총 23회 우승과 준우승 10회(승률 56% 연대율 81%)를 기록했다. 고감도 스타트와 코스, 모터를 가리지 않고 선두권에 오르는 기복없는 경기력을 보여 팬들의 두터



조성인

김종민

운 신뢰를 얻었다.

다만 기대를 모았던 2021년 쿠리하라배와 그랑프리 등 큰 타이틀이 걸린 경주에서 모두 준우승에 그친 점은 아쉬웠다. 다승 부분 2위에는 20승의 김종민, 3위는 18승을 거둔 김완석이 차지했다.

다승부분에서 당초 팬들의 기대를 모았던 2019년과 2020년 다승왕 심상철(7기)은 예기치 못한 출발위반으로 3연패 달성에 실패했다. 지난 시즌 심상철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다승왕 3연패에 바짝 다가섰다. 하지만 아쉽게도 34회 2일차(9월 23일) 9경주에서 출발위반을 기록했다. 플라이닝 복귀전에서 1승을 추가하긴 했지만 이후 승수를 더 쌓지 못했고 47회차 그랑프리 결승전(12월 23일)에서도 부진을 기록하면서 여러 면에서 아쉬움이 많은 남는 시즌을 기록했다.

상금왕은 그랑프리 우승으로 수득 상금액을 끌어올린 김종민(2기)이 차지했다. 김종민이 획득한 총 상금은 8800만 원이

다. 김종민이 2021시즌 거둔 상금은 역대 상금왕인 2018년 심상철(1억4000만원, 84회 출전), 2019년 이태희(1억3000만원, 84회 출전)의 상금액에는 크게 부족했다. 하지만 코로나 휴장 등으로 줄어든 출전횟수(40회)를 감안하면 결코 나쁘지 않은 결과이다. 2022 시즌은 작년보다 시작된 온라인 발매로 경주가 지속가능해져 선수들의 출전횟수와 상금 모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금 부문 2위는 7800만 원의 조성인, 3위는 5200만 원의 배혜민이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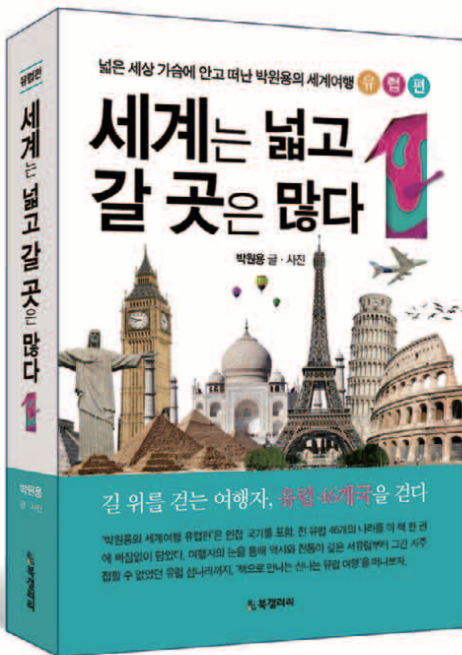
임병준 쾌속경 예상분석전문가는 "프로의 세계에서는 최고의 성적을 내는 다승왕과 상금왕이 으름"이라며 "2022시즌 역시 무엇보다 경주 자체가 재미있어야 팬들의 관심과 성원이 계속되는 만큼 선수들은 수준 높은 경주를 선보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팬데믹 상황, '책으로 만나는, 신나는 유럽여행'을 떠나자!

넓은 세상 가슴에 안고 떠난 박원용의 세계여행 유럽 편

세계는 넓고 갈 곳은 많다



박원용 글·사진 / 신국판(올컬러) / 456페이지 / 값 25,000원

유럽 전 지역 국가들을 한 권의 책에 모두 담은 여행서!
체계적이고 연관성 높여 유럽 46개국 6개 파트로 구성했다.

책으로 만나는, 신나는 유럽 여행서. '넓은 세상 가슴에 안고 떠난 박원용의 세계여행 유럽편'은 유럽 46개국을 여행하며 여행자의 눈을 통해 각국의 역사와 정치, 문화, 예술 그리고 유럽인들의 생활상까지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은 전통이 깊은 서유럽부터 그간 자주 접할 수 없었던 유럽 섬나라까지 빠짐없이 모두 담았으며, 다양한 사진과 여행기로 구성되어 있다.

유엔 가입국 193개국 대부분을 다녔던 진짜 '여행 마니아'

유엔 가입국 193개국 중 내전 발생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갈 수 없는 몇 개국을 제외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를 다녔을 바 있는 저자는 특히 오지 국가라고 불리는 아프리카와 중남미, 남태평양은 물론 유럽 전역을 한 나라도 빠짐없이 방문한 진정한 '여행 마니아'다.

※ 인터파크, 예스24, 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및 교보, 영풍, 판디엔루니스 등 전국 유통처에 있습니다.

도서주문 도서출판 북북북리력 전화 : 02)761-7005(대) / 팩스 : 02)761-7995

어둡고 암울한 코로나 시대에 포복절도 할 웃음을 안겨줄 화제의 신간

옴빠야! 제4탄 “새색시 모집공고”



값 13,000원

★작격★

- 나이 : 아직도 백 살이 안 된 여자
- 키 : 하늘보다 낮은 여자
- 몸무게 : 몸도 마음도 가벼운 여자
- 학력 : 학교를 쳐다본 적 있는 여자
- 눈 :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여자
- 코 : 콧구멍에 바람 든 여자
- 입 : 입 썩 여자
- 귀 : 귀한 여자
- 손 : 여기저기 손볼 데가 많은 여자
- 발 : 발랑 까진 여자
- 재산 : 불알 두 쪽도 없는 여자
- 미모 : 국가에서 여자로 인정하고 주민 등록에 여자로 등재해 준 여자

NAVER 새색시 모집공고

인터넷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연애 유경험자는 우대하며 한 남자로 만족하지 못하는 여자는 특별히 더 우대함

위와 같이 아름다운 미모와 자격을 갖추신 분은 우리 집으로 퍼독 오라카이

구입 문의 1577-1174